

2024 년 6 월 16 일 “(아바드의 사람들 13) 성령충만”(행 6:1-6)

오늘은 신약시대를 열어 주신 성령님이 성도 안에 충만하다는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1] 사도행전(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통치)가 확장되는 과정을 서술한 책입니다. 행 1:8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은 당시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제국의 중심인 로마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마지막 장소였습니다(행 28 장).

행 1~28 장의 사건들을 볼 때, 성령님께서서는 두 통로를 사용하여 주도하셨습니다.

(1) 교회 안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면서 사역이 많아졌지만 하나됨을 이루도록 주관하셨습니다.

(2) 교회 밖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복음적 새 삶이 따라야 했습니다.

창 1:28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 많아져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며 성령충만으로 도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 성령충만이 언급된 본문과 2 장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2] 성령충만한 일꾼 세우기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었습니다(2:44-45). 그러나 분배의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교회의 본분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성령충만한 사람 7 명을 집사로 세웁니다(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을 성령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선출된 7 집사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타국에서 온 사람들(디아스포라)이었습니다. 이들이 뽑힌 것은 소홀히 여겨진다고 느꼈던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주는 처우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함으로써,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충만한 사람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의 성령충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2 장). 오순절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주변 나라의 언어들)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행 2 장에서 성령충만은 어떤 특정 사역이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목적으로 적절한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을 말합니다(방언). 앞서 말씀드린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재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진 성령충만에 이어 베드로가 성령이 다시 충만하여 말씀 전하는 능력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3 천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맺음>

일상에서 성령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사역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성령의 재충만으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 또 재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던 성령충만에 대해 말씀해 봅시다.
2. 행 6 장의 성령충만의 의미와 2 장의 성령충만의 의미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